

배제와 억압으로서의 글읽기와 글쓰기

— T.S. 엘리엇의 경우

이 정 호

1. 시작하는 말

최근 구미(歐美)에서의 엘리엇에 대한 평가는 가히 무관심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저조한 편이다. 이는 그에 대한 평가가 적대적인 것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그에 대한 평가가 적대적일 경우 이는 선호(選好)에 대한 양가적(兩價的)인 감정의 발현이기 때문에 이를 선호적인 감정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무관심보다는 오히려 낫다고 할 수 있으나, 무관심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지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살아 있을 때에 비평가 및 일반 독자가 보여주던 열광적인 지지가 이처럼 냉담해진 것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든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열광적인 지지에서 이처럼 무관심 내지는 냉담하게 된 데에는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그의 시와 희곡 또는 평론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그의 작품을 읽는 독자들의 취향이 바뀐 데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 이같은 사실은 1998년 6월 8일자 『타임』지가 20세기의 100대 예술가와 연예인을 선정하면서, 문학에서는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와 더불어 엘리엇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가로 꼽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그의 작품이 아직도 위대함에는 틀림 없으나 그의 작품을 대하는 독자들의 취향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엘리엇이 20세기 전반부에 누렸던 문학적인 성취도는 아직도 비평가들에게는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을 읽는 일반 독자의 취향이 변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의 작품을 읽는 독자들의 취향을 이처럼 돌변하게 한 계기는 무엇인가?

이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20세기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몇 가지 철학 사조와 이에 영향을 받은 문학 비평 방법론을 살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엘리엇이 살던 시대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신비평이라고 부르는 꼼꼼히 읽기로서의 비평 방법이 풍미하던 시기이다. 이 시대에는 오직 신

비평만이 유일한 비평 방법으로 영문학 연구에서 원용되었다. 신비평은 텍스트의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텍스트 이외의 다른 요소를 문학 비평에서 배제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및 자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텍스트를 유일 무이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같이 함으로써 텍스트는 어느 의미에서는 작품을 쓴 작가의 사상과 편견로부터도 거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시대(역사)와 사회적인 맥락으로부터도 자유로움으로써 독자가 가지고 있는 취향에 상관없이 작품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이같은 비평적 태도는 일신된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포스트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사조들은 원래는 사회학 이론이거나 철학 사상의 조류였는데, 이러한 사조에 영향을 받은 문학 연구 방법론은 신비평이라는 이름 아래 이전까지 품이하던 연구 방법론을 일거에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지금도 자세히 읽거나 꼼꼼히 읽기 같은 방법론적인 연구 방법이 그대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쓰여지는 문맥은 20세기 전반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가정하에 쓰여진다는 점에서 문학에서의 신비평의 자리는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텍스트에는 유일 무이한 읽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이다. 이같은 가설이 가능하게 된 것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의해서 제창된 소위 말하는 해체철학(deconstruction)의 영향이 막중하다. 이같은 해체철학과 궤를 같이 하는 여러 학자들과 학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같은 대표적인 두 학자들을 예로 든다면, 우리는 자크 라캉(Jacques Lacan)과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를 손꼽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feminism) 또한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무시 못할 철학 및 사회 사상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의 억압성, 유색인종을 차별 내지 배제하는 백인 중심적인 사고 방식, 그리고 동성애를 배제한 이성애(heterosexuality) 우선적인 사고 방식과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억압적인 요소들은 따지고 보면 엘리엇의 작품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엘리엇은 이같이 변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전 같이 확고한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엘리엇이 누리던 절대적인 자리마저도 오히려 의혹의 대상이 된다.

이같은 저간(這間)의 사정을 생각할 때,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엘리엇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를 무(無)로

돌리고 그의 상처뿐인 영광(?)에 재를 뿌리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를 타도하자고 외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단지 20세기 전반부에 것처럼 높이 평가되던 엘리엇의 문학 이론을 20세기말 이후의 잣대로 재어 보자는 의도로 출발한 것이다. 문학도 어느 다른 문화 상품과 같이 시대적인 산물일진대, 그것이 태어난 시대의 편견과 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제 그의 문학 이론을 21세기의 잣대로 다시 재어 보려는 것은 이제 와서 그를 평가 절하하려는 것이기 보다는 그의 시대에는 다른 대체 이론이 없어 비교와 비판을 할 수 없었던 그의 문학 이론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그를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같은 그의 평가를 위해 필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잣대는 프로이트(Freud)와 라캉(Lacan)이 그들의 정신 분석 이론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 중의 하나인 욕망(desire)이 될 것이다. 욕망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용법으로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원용함으로써 엘리엇의 문학 이론을 다시 살펴 보는 데에 아주 유용한 개념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욕망(desire)이라는 용어는 최근의 문학 비평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다. 욕망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게 된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이 라캉에 의해 재해석된 후부터이다. 우리가 욕망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프로이트가 독일어로 *Wunsch*라고 썼다. 제임스 스트레이치(James Strachey)가 프로이트의 저작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는 이 단어를 영어의 *wish*로 번역했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쓴 *Wunsch*라는 단어는 영어의 *wish*가 되었는데, 이 단어는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소원'이라고 번역해야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자크 라캉(Jacques Lacan)은 프로이트가 쓴 *Wunsch*를 프랑스어로 *désir*로 번역함으로써 한국어로 '욕망'이라고 번역되는 용어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었다(이에 대한 논의는 Evans 35-36을 볼 것).

위에서 간단히 살펴 본 욕망이라는 단어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욕망이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욕망은 단지 육체적인 본능 충족에 대한 의지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욕망이라는 단어는 헤겔(Hegel)이 말하는 *Begierde*나 *Lust*의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망은 우리가 지레 짐작하듯이 단지 육체적인 충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캉에 따르면 "욕망은 인간의 본질"(*desire is the essence of man, Four 275*)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라캉에게 있어서는 특히 무의식적인 욕망(unconscious desire)을 의미한다. 라캉이 의

식적인 욕망(conscious desire)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욕망이라고 말할 때 그는 통상적으로 무의식적인 욕망을 지칭한다. 이 무의식적인 욕망은 성적인 욕망(sexual desire)이 주를 이루며, 이는 정신분석에서 중심적인 관심사가 된다. 욕망은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말하여짐으로써 그 의미가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우 욕망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라캉에 따르면 “언어가 욕망을 [완전히] 담아낼 수 없기”(incompatibility between desire and speech, *Ecrits* 275) 때문이다. 언어가 욕망을 표현하려 할 때 거기에는 언제나 언어를 넘어서는 나머지와 잉여가 찌꺼기로 남기 때문이다.

라캉은 욕망을 또한 욕구(need)와 요구(demand)와도 구분해서 쓰고 있다. 욕구는 어린애가 느끼는 생물학적이고 신체적인 필요이다. 예를 들면 어린애가 본능적으로 해소해야 할 배고픔이나 아픔 같은 생물학적인 필요가 바로 이같은 욕구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같은 생물학적인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인간의 필요가 모두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욕구 말고도 사랑이나 인정(recognition)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욕구와 요구가 모두 채워진다고 해도 아직도 채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욕망이다. 따라서 “욕망은 요구가 욕구로부터 분리되고 난 후 그 변두리에서 생겨나기 시작한다”(Desire begins to take shape in the margin in which demand becomes separated from need, *Ecrits* 311)라고 라캉은 말한다.

위에서 이처럼 욕망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았지만, 이것으로 욕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필요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엘리엇에게 욕망이 무엇이며, 이같은 욕망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 보는 과정에서 욕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엘리엇이 욕망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서 욕망이 차지하는 자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2. 아버지의 이름으로 욕망 죽이기: 「전통과 개인의 재능」의 경우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지금까지의 서양 철학의 지적 전통은 현전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presence)에 의존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형이상학은 억압을 조장하고 이의 발전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같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전에 기초한 사상 및 철학의 철폐가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이같은 억압 기

제로서의 현전은 무엇인가?

데리다가 말하는 현전은 본원적인 순간(originary moment)일 수도 있고,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a transcendental being)일 수도 있으며, 또한 하나의 언설이나 텍스트의 유일한 의미(the univocal meaning of an utterance or text)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전은 “모든 생각이 발원하는 통합의 장(場)”(the unifying ground from which all thought can proceed, Childers 2)이다. 데리다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원형(*arche*), 목적(*telos*), 본질(*essence*), 실존(*existence*), 실체(*substance*), 주체(*subject*), 진리(*aletheia*), 초월성(*transcendentality*), 의식(*consciousness*), 신(*God*), 남성(*man*) 등으로 명기하고 있다(Derrida 84).

이같은 현전의 형이상학은 그러나 그것이 부재(*absence*)에 우선하여 현전에 우선권을 임의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이항 대립(binary opposition)이라는 기능적인 분류를 가능하게 하며, 이같은 임의적인 분류에 의하여 우선권(*privilege*)이 주어진 현전은 이에 기초하여 하나의 체계적인 위계 질서(*hierarchy*)를 구축할 수 있다. 이같은 위계 질서에서는 위에서 우리가 본 데리다가 지적한 항목들이 우선권이 주어진 중심을 구축하는 반면에,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은 항목들은 이러한 중심의 주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같은 위계 질서는 구체적으로 현전/부재, 남자/여자, 신/인간(또는 피조물), 주체/객체, 이성/감성, 초월성/현상, 정신/육체, 의식/무의식, 진리/허위 등과 같은 무수한 이항 대립적인 변별적인 항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같은 대립항의 구성은 어느 분류 체계에서나 마찬가지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의 순기능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태적(*static*)일 수 있는 이론 구축(*theory building*)에 역동성(*dynamics*)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고정된 실체(*established being*) 대신에 과정(*process*)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항 대립적 사고 방식은 이같은 순기능적인 측면이 또한 똑같은 정도의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순기능의 반작용을 일으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항 대립의 역기능으로는 서로 대립되는 항목들이 단순한 작동 원리에 의한 분류의 차원을 넘어서 서로에게 배타적인 대립(*exclusive opposition*, Makaryk 511)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단지 작용과 기능에 의해 분류되던 이항 대립이 실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전의 형이상학에 기초한 이항 대립이 가져올 폐해와 모순을 감지

한 데리다는 서양 철학은 현전이라는 하나의 허상(an illusion) 위에 구축된 사유 체계로 본다. 따라서 현전의 권위와 우선권에 의해 구축된 사유 체계인 현전의 형이상학은 허상으로서의 현전에 힘과 주도권을 부여하게 된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Childers 2).

현전에 의해 그 권위가 유지되는 대표적인 예는 남근 로고스 중심적 체계(phallogocentric system)이다.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는 남근(phallus)과 로고스(logos)를 현전의 중심에 놓는 제도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징 체계가 모두 이러한 남근 로고스 중심 체계에 속한다. 물론 여기서 남근(phallus)이라고 말하는 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생물학적인 남성기(penis)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는 상징적 의미의 남근을 의미한다. 이같은 상징적 의미의 남근은 사회 체계에서 초자아를 형성하는 매스터 기표(master signifier)로서의 남근을 의미한다. 로고스(logos)는 이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지만, 이는 또한 주류 담론(dominant discourse)과 하느님의 말씀(logos)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적 사회 체계에서는 현전으로서의 하느님이 권위의 중심에 있으며, 또한 이같은 현전으로서의 하느님은 남성과 동일시된다. 이러한 사회 체계에서는 남성으로서의 하느님이 주류 담론의 권위를 담보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때, 가부장제는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전제를 기본으로하여 엘리엇의 「전통과 개인의 재능」을 다시 비판적으로 읽어 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엇이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를 맹목적으로 비판없이 받아 들임으로써 그의 주장만을 추수하는 우(愚)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글에서 질서(order)라는 단어를 빈번히 쓰는데, 이러한 질서가 곧 그가 말하는 전통을 의미한다. 그가 말하는 질서는 서양적인 전통에 의한 질서인데, 이는 또한 기독교의 전통에 의해 확립된 전통이기도 하다. 이같은 전통과 질서는 신(神)중심적이고, 백인 중심적이며, 남성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이며, 목적론적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같은 중심적인 위치에서 배제된 항목들은 이같은 전통에서는 주변적일 뿐이다. 예를 들면, 그가 이같은 전통에서 가장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인데 이는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초월적 기의(transcendental signified)로서 세상의 모든 기표의 의미를 확정하는 초월적이고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 그가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이같은 그의 주장은 별 이의없이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 시대의 조류가 바뀐 상황에서는 그의 이러한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 들이

기에는 대단한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우월적인 전통과 질서 속에서는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 남성이 아닌 여성,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교도는 주변적인 존재로 머물뿐만 아니라, 박해와 억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엘리엇의 주장은 너무나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가 노출하는 문제의 핵심이다. 엘리엇보다 수 백년을 앞서 산 셰익스피어가 아직도 건재하는데 반하여 엘리엇이 아주 급속도로 쇠락의 길에 들어선 것은 그가 가진 높은 식견과 문학에 대한 감식안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을 내다 볼 줄 아는 혜안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가 이 글에서 주장한 것은 어느 특정한 시대나 또는 어느 특정한 대상만을 염두에 둔 것일뿐 남성과 여성, 백인과 유색인종,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등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처럼 대상과 시대를 한정했기 때문에 그가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여 폭넓은 지지와 성원을 받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엘리엇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결점이며 또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그의 근본 가정이 내포한 한계를 밑바탕으로 하여 좀 더 자세하게 그의 「전통」을 읽어 보기로 하자.

엘리엇은 전통은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 각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의식(historical sense, *Selected Prose* 38)이라고 엘리엇은 주장한다. 역사 의식은 무엇인가? 엘리엇이 말하는 역사 의식은 “과거의 과거성뿐만 아니라 과거의 현재성까지를 인식”(a perception, not only of the pastness of the past, but of its presence, *Selected Prose* 38) 하는 능력을 아우르는 말이다. 이같은 역사 의식은 호머(Homer)로부터 시작된 유럽 문학과 이같은 유럽 문학 속에 존재하는 유럽 각국의 문학이 하나의 통합체를 이루어 동시적으로 존재(a simultaneous existence, *Selected Prose* 38) 하면서 동시적인 질서(a simultaneous order, *Selected Prose* 38)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엘리엇은 전통을 역사 의식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같은 역사 의식은 그의 “과거의 과거성뿐만 아니라 과거의 현재성까지를 인식”하는 능력이라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생각은 전적으로 데리다가 서양 철학의 근간이라고 지적한 현전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presence)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는 호머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문학 전통이 현전의 형이상학에 의해 동시적으로 존재하면서 또한 동시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현전의 형이상학에 의해 부재하는 과거까지도 복원하

여 현전하게 하는 대단히 강력한 의미의 전통의 개념이 된다.

그렇다면 이같은 유럽 문학의 전통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가? 이같은 질문은 그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찾아질 수 있다.

어떤 시인이나 어떤 종류의 예술가도 자신 단독으로는 완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의 중요성과 성가(聲價)는 그가 죽은 시인들과 죽은 예술가들과 맺는 관계에 대한 성가이다.

No poet, no artist of any art, has his complete meaning alone. His significance, his appreciation is the appreciation of his relation to the dead poets and artists. (*Selected Prose* 38)

물론 여기서 엘리엇이 말하는 죽은 시인들과 죽은 예술가들은 그가 이미 말한 시인의 역사 의식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죽은 시인들이거나 죽은 예술가들이 아니다. 이들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전의 형이상학에 의하여 동시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적인 질서 속에 살아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라캉이 말하는 상징적인 아버지(the symbolic father)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징적인 아버지는 오이디푸스 체계에서 법을 강요하고 욕망을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상징적인 아버지는 또한 프로이트가 『토텐과 터부』(*Totem and Taboo*)에서 말하는 자신의 자식들에 의해 살해된 최초 종족(primal horde)의 아버지가기도 하다. 이같은 상징적인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the Name of the Father, Evans 62)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엘리엇이 말하는 전통이란 라캉이 말하는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상징적인 아버지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전의 형이상학에 의해 현전하는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전통,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 속에 사는 시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엘리엇이 생각하는 시가 무엇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시는 감정의 방출이 아니라 감정으로부터의 도피이다. 시는 개성의 표출이 아니라 개성으로부터의 도피이다.

Poetry is not a turning loose of emotion, but an escape from emotion; it is not the expression of personality, but an escape from personality. (*Selected Prose* 43)

시에 대한 엘리엇의 이같은 생각은 시쓰기의 과정을 몰개성의 과정 (process of depersonalization, *Selected Prose* 40)으로 보기에까지 이르렀으며, 이같은 몰개성의 과정은 곧 “계속적인 자기 희생과 계속적인 개성의 소멸”(a continual self-sacrifice, a continual extinction of personality, *Selected Prose* 40)이라는 등식을 창출하게 된다. 이같은 몰개성의 과정을 그는 가느다란 백금선이 산소와 이산화황의 촉매로 쓰여 이 두 개스가 화학작용을 일으켜 황산이 되는 과정과 흡사하다는 이론을 편다. 이같은 그의 시의 몰개성론 (impersonal theory of poetry)은 그 과학적인 엄밀성은 젓혀 두고라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시쓰기에서 시인이 자신의 개성을 전적으로 소멸시켜야 한다는 그의 이론은 너무 지나치게 현전하는 부재로서의 상징적인 아버지에 의존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따라서 그의 시의 몰개성 이론은 그 타당성까지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이처럼 개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그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시쓰기를 주창했으며, 이같은 시쓰기는 감정에 많을 것을 의지하는 낭만 시의 전통을 배격한다는 의미에서 전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이 개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이론은 시인은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그 자신 언어의 완전한 영매 (medium)가 돼야 한다는 그 자신의 시인관에 그 연원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배제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시인이 과연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본다면, 그의 시론은 현전의 형이상학에 기초한 허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엘리엇은 왜 시인의 개성의 완전한 소멸을 주장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시쓰기의 이론에서 이제까지의 감정 위주의 낭만시의 전통을 배격하고자 했다는 일차적인 이유 이외에도, 그가 가지고 있던 로고스 중심적인 사고 (logocentric thought)에 그 근본 이유가 있다. 데리다에 따르면 로고스 중심주의 (logocentrism)는 현전의 형이상학에 기초한다. 따라서 로고스 중심주의에서는 모든 언어적인 의미, 즉 기의를 확정하는 근거로 현전이나 중심을 상정하게 된다. 이같은 현전이나 중심은 흔히 초월적인 기의 (transcendental signified)라고 부르는데, 대개의 경우 이같은 초월적인 기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으로 상정된다. 이같은 로고스 중심주의에서는 모든 의미가 현전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부재 (absence)에 기초한 글쓰기는 현전에 기초한 말하기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재에 기초한 글쓰기는 단지 현전하지 않는 말하기를 재현 (representation)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현전에 기초한 말하기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다. 이같이 현전과 부재, 말하기와 글쓰기를 우위적인 지위와 열등한 지위로 편가르기 하는 근거는 이미 플라톤이 이데아(Idea)와 현상(appreance)이라는 이분법적인 근거로 사물을 나눌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로고스 중심주의적인 사고는 단지 이분법적인 가치 판단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로고스 중심주의는 현전, 이성, 말(word), 의식 등에 그 우선권을 두기 때문에 이에 반대되는 부재, 감정, 글, 무의식 등은 부차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엘리엇이 시인의 감정이나 개성을 부차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여겨 이들을 말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중심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고려해 보면 훨씬 이해가 쉽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같은 시인의 감정과 개성의 억압은 곧 시인의 욕망의 억압이라는 문제와 연관되며, 이같은 시인의 욕망의 억압은 곧 시인의 무의식의 억압이 되기 때문이다. 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억압은 언뜻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시의 원천이 곧 시인의 무의식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엘리엇이 주장하는 시인의 개성과 감정의 철저한 배제는 시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엘리엇이 주장하는 시의 물개성 이론은 플라톤이 주장하는 공화국에서의 시인의 추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시로 대표되는 무의식과 상상력의 폐기를 의미하며, 이와 더불어 의식과 이성의 전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엘리엇의 로고스 중심적인 사고에 기초한 주장이 그의 『햄릿』론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르 보기로 하자.

3. 엘리엇의 『햄릿』 읽기: 욕망의 억압으로서의 객관적 상관물

엘리엇이 『햄릿』을 특별히 좋아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햄릿』은 그의 비평 이론과 글쓰기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우선 우리는 그의 많은 텍스트 속에서 햄릿과 성격이 비슷한 주저하고 결단을 미루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인물들은 프루프록(Prufrock)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게론촌」("Gerontion")에서 화자로 등장하는 노인과 「텅 빈 사람들」("The Hollow Men")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프루프록과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묵과할 수 없다. 이같은 주저와 미결정의 주제는

『내 사중주』(*Four Quartets*)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버런트 노오톤」(*Burnt Norton*)에 나오는 행동과 초월성의 주제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행동과 고통을 초월한 성인을 다룬 시극인 『대성당에서의 살인』에서도 햄릿과 같은 인물 유형을 베케트 주교에서 만나게 된다(Smith 44). 엘리엇의 작품에서 이처럼 많은 햄릿과 비슷한 유형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러나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가 1921년 11월에 쓴 한 편지에서 “의지의 결여와 정서적 혼란이 (중략) [내] 평생 [나를] 괴롭힌 고통이었습니다”([A]n aboulie and emotional derangement... has been a lifelong affliction, *Facsimile* xxii)라고 말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엘리엇 자신도 햄릿과 비슷한 주저와 미결단의 고통을 일생 동안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 햄릿과 비슷한 유형의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같은 엘리엇 자신의 자전적인 사실의 투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우리가 본 모든 사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J. 엘프레드 프루프록의 사랑 노래」(이하 「프루프록」으로 줄임)에 나오는 프루프록의 성격이 햄릿과 아주 흡사하다는 점이다. 엘리엇은 「셰익스피어와 세네카의 금욕주의」(*“Shakespeare and the Stoicism of Seneca”*)라는 논문에서 세네카와 마키아벨리, 그리고 몽테뉴가 셰익스피어에게 끼친 영향을 말하면서, 이들이 그에게 끼친 영향은 자의식의 수법인데, 이는 그 당시로서는 새로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같은 자의식의 기법이 나타난 예로 『햄릿』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셰익스피어가 작중 인물을 창조함에 있어 자의식과 자아 극화의 기법을 쓴 예 중에서 햄릿은 그 중 하나이다”([T]he self-consciousness and self-dramatization of the Shakespearean hero, of whom Hamlet is only one, *Selected Essays* 139). 셰익스피어가 다른 작가들로부터 자의식적인 인물을 창조하는 기법을 배워 자신의 작품에서 그런 인물을 창조했으며, 햄릿이 그런 인물 중의 하나라면, 엘리엇은 또한 셰익스피어로부터 이런 인물을 창조하는 법을 계승한 셈이다. 엘리엇의 작품에서 가장 자의식적인 인물이 프루프록인데, 그는 자신이 햄릿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강력히 항변한다: “아니야! 나는 햄릿 왕자가 아니야”(No! I am not Prince Hamlet). 그러나 강력한 부정은 강력한 긍정이 되는 수가 많은데, 프루프록의 경우 이같은 그의 강한 부정은 그가 우유부단한 측면에서 햄릿과 같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햄릿』과 「프루프록」이 모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두 주인공 모두 자의식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품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용어의 어원이 된 소포클레스

의 『오이디푸스 왕』(*Oedipus Rex*)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는 다른 종류의 콤플렉스를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주의를 요한다.

오이디푸스 왕은 고전적인 의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보여 준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여 비극을 맞음으로써 상징적인 거세(symbolic castration)를 경험한다. 그러나 햄릿과 프루프록의 경우 이들은 근친 상간의 실제적인 경험 대신에 상징적 거세를 내면화한다. 이 점이 오이디푸스 왕이 햄릿과 프루프록과 다른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햄릿』은 인간의 욕망과 이의 충족을 금기시키는 상징 질서의 기표인 남근(phallus)에 대한 회곡이라고 할 수 있다(Fink 182). 필자가 이 글에서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은 이같은 인간의 욕망이 엘리엇의 『햄릿』 읽기에서 어떻게 억압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엘리엇이 쓴 『햄릿』에 대한 비평은 기껏해야 다섯 쪽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글에서 주장하는 비평 기준이 영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 이 논문의 중요성은 엘리엇이 만든 비평의 신조어인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이라는 개념에 주어졌다. 그러나 소위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이 논문의 중요성은 엘리엇이 새로 만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 자체보다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수사(rhetoric)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가 『햄릿』의 비평에서 쓴 수사는 이 회곡을 읽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방어기제(defence mechanism)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이같은 그의 방어 기제는 바로 그의 억압적 읽기의 기본 전략임이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그는 그의 논문을 이렇게 시작한다.

회곡 작품으로서의 『햄릿』이 첫 번째 문제이고 작중 인물로서의 햄릿은 단지 부차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인정한 비평가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Few critics have ever admitted that *Hamlet* the play is the primary problem, and *Hamlet* the character only secondary. (*Selected Essays* 141)

그의 이같은 말은 그가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형식주의(formalism)라고 불리우는 신비평(New Criticism)이 작중 인물로서의 햄릿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서의 『햄릿』을 다루려고 한다는 점을 분

명해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비평가들이 작품으로서의 『햄릿』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작중 인물인 햄릿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작중 인물로서의 햄릿은 이같이 가장 위험한 종류의 비평가에게는 특별한 유혹으로 작용해왔다. 이같은 비평가는 선천적으로 창작 능력을 타고 났으나 창작 능력에 약간의 결함이 생겨서 대신 비평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평가들은 자신들이 예술적으로 구현하지 못한 것을 가끔 햄릿에서 대신 찾으려 한다.

Hamlet the character has had an especial temptation for that most dangerous type of critic: the critic with a mind which is naturally of the creative order, but which through some weakness in creative power exercises itself in criticism instead. These minds often find in Hamlet a vicarious existence for their own artistic realization. (*Selected Essays* 141)

엘리엇은 콜리지(Coleridge)와 괴테(Goethe) 같은 고전적인 셰익스피어 비평가들을 예로 들면서 콜리지는 햄릿에게서 자신의 특성을 찾으려 했고, 괴테 또한 햄릿에서 베르테르(Werther)의 성격적인 특징을 찾으려 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엘리엇은 곧 이어 이렇게 말한다.

햄릿에 대한 비평을 하면서 아마도 이들[콜리지와 괴테] 중 아무도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예술 작품을 연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 했을 것이다. [작중 인물로서의] 햄릿을 비평함에 있어 괴테나 콜리지가 한 것과 같은 종류의 비평은 가장 오도의 가능성이 높은 비평이다.

[P]robably neither of these men in writing about Hamlet remembered that his first business was to study a work of art. The kind of criticism that Goethe and Coleridge produced, in writing of Hamlet, is the most misleading kind possible. (*Selected Essays* 141)

엘리엇의 이처럼 자신에 가득 찬 콜리지와 괴테에 대한 혹평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같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평의 잣대를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하자.

엘리엇에게 있어 문학 작품은 해석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문학 작품은 단지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평가되어야 한다고 엘리엇을 생각했는데, 이는 형식주의 비평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예술 작품으로서의 문학 작품은 해석될 수 없다. 해석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다른 예술품과 비교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춰 비평할 수 있을뿐이다.

Qua work of art, the work of art cannot be interpreted; there is nothing to interpret; we can only criticize it according to standards, in comparison to other works of art. (Selected Essays 142)

그의 문학 작품 비평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문학 작품에 담긴 내용은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적인 요소들(formal elements)에 의해 정확하게 담겨져야 한다는 형식주의 비평의 전제 위에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비평할 때 비평가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 형식(form)이 적합한가의 여부만을 점검하는 것으로, 문학 작품의 해석은 비평가의 몫이 아니라는 논리인 셈이다. 이같은 그의 생각이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그의 비평 개념을 탄생시킨 배경이 된다. 그는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예술 형식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의 <객관적 상관물>을 찾는 데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감정은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인 한무리의 사물이나 하나의 상황 또는 일련의 사건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외부적인 사실이 주어지면, 이러한 사실들은 감각적인 경험을 유발하게 되어 감정이 즉시 환기된다.

The only way of expressing emotion in the form of art is by finding an “objective correlative”; in other words, a set of objects, a situation, a chain of events which shall be the formula of that particular emotion; such that when the external facts, which must terminate in sensory experience, are given, the emotion is immediately evoked. (Selected Essays 145)

따라서 엘리엇이 말하는 객관적 상관물은 “메스터 기표”(master signifier, Schwartz 88)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같은 기표는 감정을 담아내는 완벽한

형식이므로 이 기표는 표현으로서의 외부(external)와 감정으로서의 의식 내부(internal)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gap)를 막는 셈이다(Schwartz 89). 이같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볼 때, 문학 작품으로서의 『햄릿』은 실패작일 수밖에 없다고 엘리엇은 말한다.

이처럼 외형적인 형식을 감정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 예술이 [수행해야 할] “필연성”이다. 이것이 바로 『햄릿』에서 결핍돼 있다. [작중 인물로서의] 햄릿은 표현 한계를 넘어서는 감정에 지배되고 있는데 이는 감정이 [이 작품에] 나타난 묘사를 <초과해> 있기 때문이다. 햄릿과 이 작품을 쓴 작가[셰익스피어]가 동일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햄릿이 자신의 감정을 담아낼 객관적 등가물을 찾지 못 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바로 햄릿을 창조한 작가가 예술적인 문제에 당면하여 곤혹스러워 하는 것의 연장선 상에 있다.

The artistic “inevitability” lies in this complete adequacy of the external to the emotion; and this is precisely what is deficient in *Hamlet*. Hamlet (the man) is dominated by an emotion which is inexpressible, because it is in excess of the facts as they appear. And the supposed identity of Hamlet with his author is genuine to this point: that Hamlet's bafflement at the absence of objective equivalent to his feelings is a prolongation of the bafflement of his creator in the face of his artistic problem. (*Selected Essays* 145)

이처럼 엘리엇은 『햄릿』이 그의 감정을 담아낼 객관적 상관물이나 객관적 등가물(objective equivalent)을 가지고 있지 못 하며, 이는 작중 인물인 햄릿의 문제인 동시에 이 작품을 쓴 작가인 셰익스피어의 예술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엘리엇은 이 작품은 실패작일뿐만 아니라 이 희곡을 쓴 셰익스피어 자신도 예술가로서 실패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엇이 주장하는 객관적 상관물 또는 객관적 등가물이라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를 느낀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작중 인물이 느끼는 감정은 매스터 기표로서의 객관적 상관물이나 객관적 등가물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담아질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같은 그의 가정은 그가 시인이 하나의 매개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때 황산의 생성과 정이라는 과학적인 유추를 쓴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같은 화학 작용은 실험

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나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객관적 상관물이나 매개물 또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완전한 용기(容器)이기를 바라는 그의 희망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전통」에서 “예술이 과학의 차원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같은 물개성 상태에서이다”(It is this depersonalization that art may be said to approach the condition of science, *Selected Essays* 17)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주장은 기표와 기의가 일대일의 관계를 가지면서 불가분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될 때만 가능할뿐이다. 기표와 기의 사의의 관계가 자의적이며,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리돼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엘리엇의 이같은 주장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인간의 의사 소통 수단인 언어가 생긴 이래로 언어를 가지고 자신이 뜻하는 바를 완전히 재현(representation)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의 허구이고 환상일뿐 실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엘리엇이 여기서 주장하는 객관적 상관물(등가물)에 의해 감정을 완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하나의 환상일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기표와 기의가 완전히 합일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폭력이나 억압 같은 비정상적인 수단이 동원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폭력과 억압에 의해 기표와 기의가 합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완전한 합일일뿐, 그것은 항구적인 합일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엘리엇이 주장하는 객관적 상관물(등가물)에 의한 기표와 기의의 합일은 단지 사상누각(砂上樓閣)에 지나지 않는 허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같은 허구로서의 기표와 기의의 합일을 무슨 근거에 의해 엘리엇이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보기로 하자.

엘리엇이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감정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언어가 가지는 은유적인 측면(metaphoric aspect)만을 본 것이다. 문학에서 쓰이는 수사(figures of speech)는 대략 두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이다. 은유와 환유가 문학에서 주로 쓰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수사적 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로마 야콥슨(Roman Jakobson)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언어학자인데, 은유와 환유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된 것은 실어증(aphasia)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같은 그의 연구 결과는 1956년에 발표된 「언어의 두 가지 양상과 실어증의 두 유형」(“Two Aspects of Language and Two Types of Aphasic Disturbances”)이라는 논문에서 자세히 나타나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실어증

에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언어의 선택(selection)의 측면과 조합(combination)의 측면을 구분했다. 예를 들어 “나는 라면을 먹는다”라는 문장에서 선택의 측면과 조합의 측면을 보자. 이 문장에서 나를 너, 창수, 영희 등의 단어로, 그리고 라면을 빵, 밥, 사과, 과자, 케이크 등으로, 그리고 먹는다를 산다, 본다, 받는다, 만든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등으로 바꿀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의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같은 문장의 예로는, “영희는 사과를 산다” “창수는 빵을 좋아한다” 등 여러 가지의 문장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놓는 것을 선택이라고 하며, 이같은 선택이 이루어지는 축을 계열 축(paradigmatic axis)이라고 한다.

반면 이같은 선택에 의해 대체된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만드는 법칙을 통사 법칙(syntagmatic rules)이라고 부르며, 이같은 배열이 이루어지는 축을 통사의 축(syntagmatic axis)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열 축과 통사 축은 서로 다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다. 계열 축은 수직적(vertical) 또는 위계적(hierarchical) 체계를 가지는 반면에, 통사의 축은 수평적(horizontal) 체계를 가진다. 이 두 가지 축에 이상이 생긴 경우 실어증에서는 각기 다른 증상이 생기는데, 야콥슨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자[계열의 축]에 이상이 생기면 메타 언어적인 작용이 악화되지만, 후자[통사의 축]에 이상이 생기면 언어 단위의 위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손상된다. 전자에서는 상사관계(相似關係)가 위축되고 후자의 실어증에서는 인접관계(隣接關係)가 위축된다. 상사관계 장애가 생기면 은유적 표현을, 인접관계 장애가 생기면 환유적 표현을 하지 못한다.

The former affliction involves a deterioration of metalinguistic operations, while the latter damages the capacity for maintaining the hierarchy of linguistic units. The relation of similarity is suppressed in the former, the relation of contiguity in the latter type of aphasia. Metaphor is alien to the similarity disorder, and metonymy to the contiguity disorder. (Jakobson 109)

실어증에 대한 이같은 야콥슨의 이론은 라캉에 의해 프로이트가 설명한 꿈의 작용을 설명하는 두 축에 적용된다. 프로이트는 꿈의 작용을 압축(condensation)과 치환(displacement)의 두 축으로 분류했다. 프로이트가 말한 압축은 야콥슨이 말한 은유의 축, 즉 계열 축과 같으며, 치환은 환유, 즉

통사의 축과 같다고 라캉은 말한다(Evans 112-113).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엇이 말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라캉이 말하는 은유, 즉 계열의 축과 같은 것이며, 이는 또한 프로이트가 말하는 압축과 같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객관적 상관물은 오이디푸스 체계(Oedipal system)와 같은 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은유에서 일어나는 선택은 곧 대체(substitution)의 개념인데, 이는 어머니의 욕망(the desire of the mother)을 아버지의 이름(the Name of the Father)으로 바꿔 놓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Evans 112). 이같은 선택과 대체는 필연적으로 억압(repression)을 수반하게 된다. 엘리엇이 말하는 객관적 상관물의 작동에는 이처럼 억압과 폭력을 그 존립의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객관적 상관물의 최종적인 의미는 언어로 표현된 기표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러한 언어적 기표의 기의를 궁극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초월적 기의(transcendental signified)라고 말할 수 있다. 데리다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기표의 기의를 궁극적으로 확정함으로써 모든 의미 작용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바로 초월적 기의로서 이는 따라서 현전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presence)의 대표적인 예인 로고스 중심주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로고스 중심적인 사고 체제에서 기표와 기의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데리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미작용에 있어서 “기호”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있어서 언제나 어떤 것의 기호로, 기의를 지칭하는 기표로, 그것(기호)의 기의와는 다른 하나의 기표로 이해돼 왔고 또한 [그렇게] 확정돼 왔다.

For the signification “sign” has always been understood and determined, in its meaning, as sign-of, a signifier referring to a signified, a signifier different from its signified. (Rice 179)

그러나 기표나 기호에 대한 이같은 생각은 소쉬르(Saussure)의 언어학 이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유효했다. 소쉬르는 그의 『일반 언어학 강의』(*Course in General Linguistics*)에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호 이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까지의 언어학에서 신봉되던 전제인 일물일명(一物一名)의 원칙은 탈피하여, “언어에서는 모든 것은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In a language-state everything is based on relations, 122)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모든 기표들의 기의를 확정하는 것으로 여겨지

던 초월적 기의의 자리를 박탈함과 더불어 언어는 단지 차이의 체계(a system of differences)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소쉬르는 그러나 기호를 이루는 기표와 기의는 동전의 앞과 뒤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후에 나타난 데리다는 기표와 기의는 그렇게 단단히 연계된 것이 아니라는 이론을 내놓음으로써, 기표와 기의는 이제 더 이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이 분리돼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의로부터 분리된 기표들은 단지 부유하는 기표(floating signifiers)로 남게 된다. 소쉬르에 의해 소멸된 초월적 기의는 이제 기표와도 완전히 분리되어 단지 차이에 의해서만 의미가 성립되게 된 셈이다. 초월적 기의의 소멸은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일물일명의 전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기호를 이루는 기표와 기의의 단단한 끈이 끊어지고 만 셈이다. 따라서 기표들은 서로 간의 차이에 의하여 기의가 형성된다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엘리엇의 객관적 상관물 이론은 현전의 형이상학을 그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수명이 이미 예고된 셈이다. 현전의 형이상학은 어떤 통합적이고 초월적인 준거점(reference point)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같은 준거점만이 궁극적인 지식(the ultimate intelligibility)과 이에 대한 담론의 총괄적인 힘을 보증할 수 있다고 본다(Makaryk 589). 이같은 믿음의 준거점은 신(God), 진리(truth), 근원(origin), 목적(telos) 등으로 표현되는 중심(center)으로서 이같은 중심은 모든 기표의 의미를 확정한다. 그러나 이같은 의미의 확정 은 억압이라는 대가를 치루고 확립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미의 확정은 계열의 축에서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표가 선택된다는 것은 그 이외의 모든 다른 기표를 억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열의 축에서 하나의 기표가 하나의 기의와 합일을 이루어 하나의 의미를 확정하는 은유(metaphor)가 되는 경우, 이같은 의미의 확정은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 아버지의 법(the Law of the Father)의 운용 법칙을 따라야만 한다. 이같은 은유의 차원은 아버지의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가부장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엘리엇의 객관적 상관물 이론은 바로 이같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객관적 상관물은 기표와 기의의 완전한 합일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표로서의 객관적 상관물은 기의를 충실히 지칭해야 하며, 또한 이를 완전히 담아 낼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억압적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따라서 객관

적 상관물 이론은 그것이 이처럼 로고스 중심적이라는 측면에서 로고스에 의한 배제와 억압을 근본적인 작동 원리로 삼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이성 에 반대되는 감성은 배제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논리를 밀고 나갈 경우, 정신에 우선권이 주어져, 육체 또한 배제와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감성과 육체의 억압과 배제는 또한 욕망의 배제를 의미하게 되는데, 욕망은 그 특성상 어떠한 기표에 의해서도 담겨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일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담겨질 수 있다는 가정은 허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캉에 따르면 욕망은 그 자체가 잉여(surplus)이고 나머지(leftover)이며 언어를 넘어서는 것(Evans 36)이기 때문이다. 라캉은 욕망을 욕구(need)와 요구(demand)로부터 구별한다. 그에 따르면 욕구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본능(purely biological instinct)이고 요구는 이같은 욕구의 표현이며 동시에 사랑에 대한 요구이다. 이 경우 생물학적인 욕구가 채우지더라도 사랑에 대한 요구는 채워지지 않고 남아 있게 마련이다. 이처럼 채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욕망이다. 채워지지 않은채로 남아 있는 욕망은 존재의 결핍(want-to-be)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욕망의 실현은 욕망을 채움으로써 이루어지기보다는 욕망을 재생산함으로써 가능해진다(Evans 37). 이같은 욕망의 속성을 라캉은 “욕망은 본질적으로 타자의 욕망의 욕망”(Desire is essentially “desire of the Other’s desire,” Evans 37)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라캉의 말은 다음의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한다. 이는 (1) 주체가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며, 동시에 (2) 타자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엘리엇이 『햄릿』을 비평하면서 쓴 용어인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이 정확한 것인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그는 『햄릿』은 “어머니의 죄가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희곡”([A] play dealing with the effect of mother’s guilt upon her son, *Selected Essays* 143)이라고 말함으로써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에서 주제로 다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짚어낸다. 그러나 엘리엇이 보기에는 셰익스피어가 이 희곡의 주제를 정확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실패작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셰익스피어는 이 동기[어머니의 죄가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를 이 미 [키드(Kyd)가] 쓴 희곡의 “호락호락하지 않은” 소재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킬 수 없었다.

[이 소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희곡(『햄릿』)은 셰익스피어의 걸작이라기보다는 가장 확실히 실패한 예술 작품이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 희곡은 그의 다른 희곡에 비하여 난해하고 불안정하다. 그의 모든 희곡 작품 중에서 이 희곡은 길이가 가장 길며 셰익스피어는 아마도 이 작품을 쓰느라 많은 애를 썼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작품 속에 잉여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장면들을 그대로 남겨 놓았다. 이 작품을 조금만 수정했더라도 그는 이같은 실수를 곧 발견했을 것이다.

Shakespeare was unable to impose this motive successfully upon the "intractable" material of the old play.

Of the intractability there can be no doubt. So far from being Shakespeare's masterpiece, the play is most certainly an artistic failure. In several ways the play is puzzling, and disquieting as is none of the others. Of all the plays it is the longest and is possibly the one on which Shakespeare spent most pains; and yet he has left in it superfluous and inconsistent scenes which even hasty revision should have noticed. (*Selected Essays* 143)

위에 인용한 부분은 엘리엇이 그의 객관적 상관물 이론을 적용하여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실패작이라고 선언하는 부분으로, 이 논문의 핵심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intractable) 라는 말에 인용부호를 씌으로써 그는 이 부분을 강조한다. 그가 『햄릿』을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한 이유는 셰익스피어의 언어적인 표현이 감정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담아내지 못 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햄릿은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돼 어머니가 숙부와 곧 결혼하자 그녀가 저지른 이같은 죄(어느 의미에서는 간음 이므로)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러나 햄릿의 이같은 고민은 단순히 어머니의 결혼에 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햄릿이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망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의 욕망은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망은 곧 타자로서의 어머니의 욕망인데, 이는 그 자신이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같은 욕망은 또한 아버지의 법에 의한 거세의 위협 속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욕망이기 때문에 이같은 그의 욕망은 억압되어 내면화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햄릿의 욕망은 또한 타자로서의 어머니의 욕망이라는 측면에서 어머니의 욕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같은 햄릿의,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의 욕망은 아버지의 법에 의해 고분고분하게 다독겨질 수 있는 욕망이 아니다. 이같은 욕망 자체는 채워질 수도 없을 뿐더러 이에서 더 나아가 계속적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이 욕망은 단지 잉여이고 나머지며,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고, 또한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해서 이런 욕망을 담아내는 언어로서의 기표는 기의와 유리되어 미끄러지면서 통제할 수 없게 (intractability)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묘사에 쓰인 언어가 필요 이상으로 수다스러워지며 (superfluous) 또한 앞뒤가 맞지 않게 (inconsistent)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욕망이 로고스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해서 이 희곡은 셰익스피어의 어느 다른 작품보다도 가장 길이가 길어졌으며 (longest), 그 결과 이 희곡은 난해하고 독자 (또는 관객)를 불안 속으로 몰아 넣는다 (disquieting). 이 희곡은 햄릿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욕망을 주제로 한 것이므로 엘리엇이 이 희곡을 실패작이라고 말하면서 열거한 항목들은 이 희곡의 결점으로 꼽히기보다는 오히려 기표로서의 언어의 한계를 지적한 항목들이 돼야 할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왜 실패작인가를 조목조목 지적한 엘리엇의 근거가 대단히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같은 근거가 잘못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언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셰익스피어의 잘못이 그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는 셰익스피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엘리엇은 언어의 영매인 작가는 언어를 통하여 욕망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로고스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객관적 상관을 통하여 바로 이같은 작업을 『햄릿』에서 하지 못함으로써 그를 실패한 작가라고 매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에서 객관적 상관을 통하여 햄릿의 욕망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작가로서의 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예술 매체로서의 언어의 결점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 한 것이다. 이 작품이 드러내는 바는 오히려 엘리엇이 말하는 매스터 기표로서의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이 보여주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예술 매체로서의 객관적 상관물은 욕망을 드러내는 기표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셰익스피어는 역설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은 언어가 욕망을 포함하는 모든 기의를 완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매개체로 봄으로써 이를 만능 기표로 착각하고, 자신의 억압적 의도를 이 객관적 상관물 이론을 통하여 유감없이 드러낸 셈이

다. 이같은 사실은 그가 이 작품을 논하면서 “이 작품은 문학에서의 ‘모나 리자’이다”(It is the “Mona Lisa” of literature, *Selected Essays* 144)라는 표현에서 역설적으로 잘 드러난다.

모나리자의 비밀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은 그녀의 미소가 언어를 넘어서 욕망의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그녀의 미소를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예술인 미술에서는 드러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언어를 매개로 하는 문학이 담아낼 수 없는 것은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모나 리자의 미소는 언어를 매개로 하는 문학에서는 객관적 상관물로 담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햄릿』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이같은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언어가 담아내지 못하는 욕망을 읽어야 한다. 그러나 욕망은 언어의 그물 밖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언어로는 드러내기가 불가능하다. 엘리엇은 이 경우 언어의 기능을 과대 평가하여 언어의 능력이 무소불위(無所不爲)라고 착각하면서 언어 자체의 한계를 셰익스피어에게 떠넘기는 우(愚)를 범한 셈이다. 이같은 엘리엇의 『햄릿』 읽기는 언어에 의한 욕망의 억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햄릿』이 엘리엇의 부정적인 비평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아직도 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이 주장한 객관적 상관물 이론은 언어 예술에 대한 마지막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프로이트가 말한 억압된 것의 회귀(return of the repressed)라는 개념을 하나의 준거틀로 사용하여 엘리엇의 객관적 상관물 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살펴볼 수 있다. 엘리엇은 무의식 속으로 욕망을 억압하여 구겨 넣고 그 위에 언어의 만능적 능력과 로고스로서의 논리를 기초로 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그의 논리가 아무리 용의주도(用意周到)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무의식이 단단한 암반이 아니라 늘일 경우에는 그의 언어에 대한 이같은 논리는 설 자리를 잃고 만다. 더구나 그의 이론이 무의식을 억압하고 그 위에 세워진 이론일 경우 우리는 억압된 것으로서의 무의식의 회귀를 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무의식의 회귀는 그 위에 구축된 로고스 중심적 이론을 송두리채 붕괴시킬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무의식 속에 감추어진 욕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욕망은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내용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의식과 대비되는 무의식이 의식에 비하여 결코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다. 의식이 무의식에 비하여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경우 주체는 안정되고 고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의식이 의식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보다 더욱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경우 언어로 무의식을 억압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언어는 또한 주체의 분열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소라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만능 기표(master signifier)는 그 설 자리를 근본적으로 상실당하게 된다

4. 맺는 말

엘리엇이 쓴 「전통과 개인의 재능」은 20세기 영문학 비평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 비평에서도 그 중요성이 큰 비평 논문이다. 이 논문과 더불어 그가 주장한 객관적 상관물 이론을 담은 「햄릿」 또한 이에 비견할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 논문이다. 「전통」에서 엘리엇은 전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로 백인 중심의 서구 문명과 문화에서의 전통의 공시성(simultaneity)과 이같은 공시성 속에 위치한 개별 작가가 이러한 전통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그가 전통과 개별 작가가 연계된 것으로 보는 것은 바로 개별 작가의 비개성(impersonality) 또는 물개성(depersonalization)에 기인한다. 엘리엇 자신도 비개성과 물개성을 정확한 정의나 구분 없이 썼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개별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개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자신의 비개성화된 지성(impersonalized mind)을 통해 전통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함을 역설한다.

「햄릿」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전통」에서의 이같은 그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이같은 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글쓰기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경우 그는 그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작중 인물로서의 햄릿이 지나친 감정을 노출함으로써 그가 말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잣대로 볼 때 실패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어느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다. 엘리엇이 주장하는 객관적 상관물 이론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언어 매체로서의 기표와 이러한 기표가 보여주는 기의의 완전한 합일이다. 이같은 그의 생각은 이제껏 서양 사유의 중심에 위치한 현전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presence)에 기초한 것이다. 이같은 현전의 형이상학에서는 모든 기표는 이성, 의식, 신, 원형 등이 중심에 자리하기 때문에 그 기의가 확정된다는 철학적인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같은 전제의 한계는 현전 중심 지향적인 사

고가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현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감성, 무의식, 인간과 피조물, 그리고 현상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억압되고 배제된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현전의 형이상학의 횡포는 그러나 소쉬르가 주장하는 기호학에 의해 그 설득력을 잃고 만다. 소쉬르에 따르면 기표는 초월적 기의라고 여겨지는 신, 의식, 이성 등 중심의 현전에 의하여 그 기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표들 사이의 차이에 의하여 기의가 결정되는 자의적 언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신(神)이라는 기표는 그것이 실체로서의 신이라는 개념과 자동적으로 그리고 일대일로 연계된 것이라기보다는 신이라는 단어가 산(山), 선(善), 손(手) 등 다른 기표와의 차이에 의하여 그 기의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언어로서의 기표는 단지 차이에 의해 그 기의가 결정될 뿐 소위 말하는 중심의 현전에 의해 기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쉬르는 이같은 차이에 의한 기의의 확정에 있어서도 기표와 기의는 서로 동전의 앞과 뒤처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생각했다. 이같은 소쉬르의 생각은 구조주의의 근본 가정인데, 데리다는 이러한 소쉬르의 생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언어 구조에는 이같은 중심 자체가 없다는 이론을 주장한다. 또한 데리다는 소쉬르와는 달리 기표와 기의가 서로 땀레야 땀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리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데리다의 해체(deconstruction) 철학은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구조의 중심을 부정하고 기표와 기의의 유리를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탈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라고 여겨진다. 엘리엇의 객관적 상관물 이론은 계열의 축에서 일어나는 어휘로서의 기표의 선택은 기의를 완전 무결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므로 기표와 기의의 합일이 중심의 현전에 의해 확정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엘리엇의 생각은 언어의 중심이 해체돼 있고 또한 이로 인해 기표와 기의의 유리를 주장하는 데리다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엘리엇의 주장은 현전으로서의 중심을 그 억압 기제로 한 이론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계열의 축에서 일어나는 어휘의 선택이 근본적으로 억압에 의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같은 엘리엇의 객관적 상관물 이론은 억압에 기초한 이론이 되는 셈이다. 더구나 엘리엇이 그의 객관적 상관물 이론의 근거가 되는 기표와 기의의 분리불가(分離不可)의 원칙은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phallogocentrism)에 확고하게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소쉬르와 야콥슨(Jakobson)의 언어 이론을 무의식 읽기에 적용한 라캉은 데리다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기의가 기표에 우선하기

보다는 그 반대로 기표가 기의에 우선함을 주장한다. 이같은 라캉의 주장은 기표를 기의로부터 완전하게 분리시킴으로써 기표는 기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단지 떠 다니는 기표(floating signifier)로 존재한다는 이론으로 밀고 나간다. 이같은 라캉의 이론에 따르면 기표가 기의를 완전 무결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이론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된다. 따라서 엘리엇의 객관적 상관물 이론은 하나의 희망 사항일 뿐 그 실현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객관적 상관물 이론의 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욕망이다. 욕망은 생물학적인 필요에 의한 욕구(need)나 이의 표현인 요구(demand)와는 별개로 이 두 가지가 충족된 뒤에도 언제나 충족되지 않는 나머지와 잉여로 남아 있게 마련이다. 이같은 잉여와 나머지로서의 욕망을 떠 다니는 기표로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더구나 햄릿의 욕망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로서의 어머니의 욕망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언어적 기표인 객관적 상관물로 이같은 욕망을 송두리채 담아낼 수 있다는 발상은 불가능에 대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견지에서 볼 때, 객관적 상관물 이론은 남근 로고스 중심적 사고에 기초한 억압적 글쓰기와 글읽기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객관적 상관물 이론에 기초한 물(비)개성 이론 또한 이성/감성이라는 이분법적인 로고스 중심적인 사유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배제와 억압을 전제로 한 이론인 셈이다. 이제 우리는 엘리엇의 비평 이론에서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겨지던 객관적 상관물과 물(비)개성 이론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야 할 때가 된 셈이다.

인용한 문헌

- Adams, Hazard, and Searle Leroy, eds. *Critical Theory Since 1965*. Tallahassee, FL: FL State UP, 1986.
- Apollon, Willy, and Feldstein, Richard, eds. *Lacan, Politics, Aesthetics*. Buffalo, NY.: SUNY P, 1996.
- Brooker, Jewel Spears, ed. *The Placing of T.S. Eliot*. Columbia and London: U of Missouri P, 1991.
- Childers, Joseph, and Hentzi, Gary, eds. *The Columbia Dictionary of Modern Literary and Cultural Criticism*. New York: Columbia UP, 1995.
- Derrida, Jacques.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 Rice, pp. 176-191.

- Eliot, T.S. *Selected Essays*. London and Boston: Faber and Faber, 1980.
- . *Selected Prose of T.S. Eliot*. Ed. Frank Kermode. London and Boston: Faber and Faber, 1975.
- . *The Waste Land: A Facsimile and Transcript of the Original Drafts Including the Annotations of Ezra Pound*. Ed. Valerie Eliot. New York: Harcourt, 1971.
- Evans, Dylan.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 Fink, Bruce. "Reading *Hamlet* with Lacan." In *Apollon*, pp. 181-198.
- Jakbson, Roman. *Language in Literature*. Eds. Pomorska, Krystyna, and Stephen Rudy. Cambridge, MA, and London: Belknap P of Harvard UP, 1987.
- Lacan, Jacques. *Ecrits: A Selection*. Tr. Alan Sheridan. London: Tavistock, 1977.
- .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Ed. Miller, Jacques-Alai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9.
- Makaryk, Irena R., ed.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Approaches, Scholars, Terms*. Toronto: U of Toronto P, 1993.
- Rice, Philip, and Patricia Waugh, eds. *Modern Literary Theory: A Reader*. 3rd ed. London and New York: Arnold, 1996.
- Schwartz, Susan. "Judgment and Jouissance: Eliot, Freud, and Lacan Read *Hamlet*." In *Sloop*, pp. 84-101.
- Sloop, John M., and James P. McDaniel, eds. *Judgment Calls: Rhetoric, Politics, and Indeterminacy*. Westview P, 1998.
- Smith, Grover. "T.S. Eliot and the Fascination of *Hamlet*." In *Brooker*, pp. 43-59.
- Wright, Elizabeth, ed. *Feminism and Psychoanalysis: A Critical Dictionary*. Oxford, UK: Blackwell, 1992.